

58년 개띠의 생애

1. 경제개발의 시동(1962-)

- 1958년생은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은 세대. 2부제 수업은 기본, 한 클래스에 90명.
- 1962년 경제성장률=3.1%. 1962-67(1차 5개년 계획) 연평균 성장률 = 8.3%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가량(1963)...cf. 1980년 국민소득 1,000불. 수출 백억 불 목표.
-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주의...<기쁜 우리 젊은 날>(1987년 영화)...종합상사(1975년 지정제 실시)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움직임. 민주당 정권 입안. 5.16쿠데타 이후. 화폐개혁(1962년 6월 10일 토요일(6/9)밤에 전격실시, 실패)...박희범. 국가재건최고회의 상공의원장 유원식. 미국에게는 48시간 전에야 통보..승인받지 못함. 내자동원이나 외자동입이냐? 내포적 공업화/균형발전전략노선의 후퇴.(1963-4년 계획수정작업) 산업개발공사...국가가 투자주체로 직접 등장(사회주의적 or 파시즘?)
- 민족경제 혹은 자립경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 "식모" "안내양" "공순이"(1975.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님.(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지상주의적 목표가 드러나지 않았음.)
- 자립경제지향은 주요한 갈망...북한과의 체제경쟁("자립적 민족경제론") Joan Robinson(1964), "Korean miracle"(북한을 지칭). 1966 잉글랜드 월드컵. 북한 8강 진출.
- 중상주의적 요소...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국부(cf.국산품애용). 공업중시/농업경시. 군대육성 등
- 성공요인..중상주의가 갖는 구성의 오류(모든 나라가 수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 미국..지정학적 역할.
- 1963년 쌀 위기.1960-61년 환율현실화.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희구..)
- 민족주의적 요소? 서구적 생활양식에 대한 비판(이른바 진보/보수를 막론...1970년대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 성장에 대한 태도(성장지상주의 및 성장에 대한 향수). 외국에 대한 태도(민족주의..국수주의...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 대한 동경. 자립적이고 완결적인 그 무엇으로서의 선진국 경제에 대한 환상?)

2. 국가주의: 근대성의 두 얼굴(1960년대 후반-1971)

- 주민등록제도(1968년). 고교 및 대학 교련 실시(1969).
국가안보지상주의...58년 개띠 세대의 부모세대와 유사(식민지 천황제 파시즘기에 유소년을 보냄)
전태일 열사 분신(1970)...성장의 그늘. 광주대단지 사건(1971.8.10). 와우아파트 붕괴(1970.4)
- 자유주의적 가치의 억압. 진중권, <호모 코레아니쿠스>

- 베트남 파병(1966-매년 4만명 수준)...특수. 대베트남에 대미수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액의 10-15%로 추정.(67수출=3.2억 달러. 72년=16.2억 달러)
- 1971년 5월 제7대 대통령선거...<대중경제 100문 100답> 외채문제. 부유세 공약.
삼선 개헌을 통한 마지막 직선(10월 유신 직전)
- 국가가 갖는 의미...국가가 짜놓은 판 속에서 가족의 생존, 이익 극대화. 성공주의와 "각자도생주의"
- 지정학적 조건...냉전체제. 남북한 체제경쟁. 대내적으로 강력한 국가(안보위협).
- 경제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평균 10%대 성장. 외자도입과 만성적 국제수지적자 문제 대두. cf. 대중경제론의 비판.
- 1965 금리현실화(10%대 금리를 30%대로 인상). 환율개혁. 외자도입. 본격적 수출주도공업화. 강력한 산업정책...수출기업에게 특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실적에 기초한 특혜였다는 점을 강조함. 어쨌거나 한국경제구조의 원형이 형성됨. ex.재벌.
- 지가상승: 서울의 평균지가(1963년=100)는 1970년=1,445 물가상승의 6.7배에 이름. 말하자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한몫을 잡을 수 있던 시기였음. 황석영 소설 <강남동> 혹은 영화 <강남 1970>. 한국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시기..정치자금이나 고위 관료들의 재테크.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산구성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 cf. 1942년생의 회고...취업할 곳이 없었다.
- 노동자의 착취에 기반한 성장인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뭐라 말하기는 어려움. 197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대체로 꾸준히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옴.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별로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옴.
기본적으로 인구증가율과 성장률이 높은 사회에서는 세습은 위력을 갖지 못한(피케티)...결국 이런 요인들이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였을 것임. 물론 "능력" 안에는 다양한 개념이 포함됨. 사교육이나 중고교입시까지 열풍이 불기 시작한 시기.
서구 산업혁명기...마르크스가 등장하던 시점에 비견됨. 노동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
- 산아제한(가족계획. 셋만 낳자)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함.
혼분식 장려운동(1967-1976 행정명령. 모든 음식점 25%이상. 분식의 날. 도시락검사)

3. 유신과 중화학공업화(1972-)

- 기술의 근대성 vs. 해방의 근대성 사이의 모순이 최고에 이르는 시기.
10월 유신...중화학공업화. 최근, 정치인 중에도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하는 논리.
- 정치, 사회적 암흑시대...긴급조치 등. 1972.7.4남북공동성명...남북경제력? cross...평양.서울 지하철.
- 1960년대 경공업 수출중심체제의 한계 노정.
외자도입한계...1972년 8.3조치, 사채동결. 사채규모3,456억원, 국내 여신의 34%.
경상수지적자 누적...1965-1972년 사이 수출=56억불, 수입=112억 불. 외채누적(2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1969-71 경기하강국면, 1972.10 유신. 1973.1 중화학공업화 선언.

1973-4 제1차 오일 쇼크

-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정책금융동원, 자원배분
경제성장률(1975년 6.1%, 1976-1978년, 11.9, 10.1, 9.4%.
전환점(turning point): 무제한적 노동공급에서 제한적 노동공급으로...1976년 이후 실질임금 상승 시작.
- 재벌로서는 비상한 성장기회.
1979년 경제성장률 6.4%로 하락(위기?)...중화학중심으로 이행, 그러나 여전히 자본재의존구조는 유지(무역수지 적자도 1972년 5.1억 불에서 1979년 43.6억 불).
1978.12 국회의원선거...득표율에서 공화당이 1.1% 뒤짐.
- 고등교육인구 급증(고교생수: 1960년, 27만 6천명...> 1979년 156만 5355명. 대학생수—내 배 증가. 중고교 남녀비율 2:1에서 1980년에는 거의 1:1. 대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cf.1985년에도 남자 68만명 vs. 여자 25만 명)
- 국기에 대한 맹세(1972년)...국기하강식, 영화관 기립 등. 학도호국단 부활...충효사상. 이순신 장군 성웅화 작업.(홍상수 영화 <하하하>) 은희경, <마이너리그>...폭력적 학교문화
- 대중문화...1970년 전후 통기타. 통. 불. 생....이중적 태도(대학가는 민족 민중문화 강조)
197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심화...그 시대들이 자라서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
19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반공궐기대회 등, 대중문화 규제(신중현, 대마초 등)
1972년 새마을 운동.
- 강남의 본격적 개발 시작. 반포.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명문고 이전 등 인프라 지원.
- 아파트 및 전화, 티브이 보급.
- 부가가치세 도입(1977년)...세율 10%. 세수확보목적. 부마사태(항쟁) 당시 세무서 공격사태.

4. "광주"와 경제위기(1979-80)...외채위기(1980년대 초중반)

- 80년 제2차 오일쇼크에 정치불안. 첫 마이너스 성장(-1.5%). 물가상승률=28.7%
- 81년 이후 6.2%, 82년 7.3, 83년 10.8% 84년 8.1%등
- 물가안정(81년-21.4%, 82년-7.2%. 83-3.4%)
-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긴축정책. 개방화...수입가격 하락. 김재익 경제수석?
그러나, 외채위기 현실화...470억불(85년),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롤오버 레이트 77%). 청소년 축구 4강 초청대회("외채4강"). 남미...미국 고금리정책전환(1979년 폴볼커 FRB의장...부익부 빈익빈 초래)...신자유주의의 상징(자본의 반격)
- 극북: 신냉전...일본(나카소네 방한) 차관(40억불). 미국 은행 들, IMF 등도 지원...구조조정 요구하지 않음. 이례적.
- 경제안정화종합시책(1979년 입안)...시장원리 강화.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반. 국가 vs. 자본의 역관계에 변화? 물론 국가권력의 힘은 켜으나...
- 주변부 포드주의, 노동억압. 유흥적 테일러주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결합양상..존재이전

(위장취업)..예: 대우어패럴. 당시 노조위원장...심상정(59년생?)

- "서울의 봄"...최영미, <청동정원> 서울역회군 등 58년생 주도/기숙사 군인 점령.폭력의 기억. <모래시계>세대. 서울대 투신(김태훈). 직접적인 광주 기억을 가진 세대.
- 70년대 후반 대졸자부족현상.정원확대.분교 설치 등. 1980년 대학진학률 15%
대학생수 1970년 19만 2천명--> 1980년 61만 1천명...입시경쟁.
- 과외금지 및 졸업정원제, 대학진학률 급상승. 후과?
- 학내 경찰 상주..학원자율화...386세대와의 겹침. 엘리트의식.
- 3s정책(프로야구. 올림픽유치.아시안게임유치...에로영화 등)
- 해외여행자유화,교복두발자유화 등

5.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 성인이 된 58년 개띠, 민주화의 주역. 넥타이부대.
- 아시안게임(1986), 서울올림픽(1988)
- 6월 항쟁(박종철, 이한열 죽음). 대통령직선제 개헌. 제13대 대선 노태우 당선. - 90년 3당 합당...보수대연합의 구도. 91년 강경대군 사건 등.
- 3저 호황(유가, 금리, 환율)으로 외채위기 극복..."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
1985 미국, 일본간 플라자 합의..엔고.(일본은행은 불황우려 저금리기조...거품. "일억총종류")
1987-89 3년간 10% 이상 성장. 경상수지흑자(86-89). 졸업정원제로 늘어난 대졸자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흡수. 실업률: 4%(85)...3.8(86), 3.1(87), 2.5(88), 90년대 중반까지 2%대
1인당 국민총소득 3,467달러(87), 4,653달러(88), 5,718달러(89), 7,983달러(92) 만달러돌파(94)
-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7-9월 3,441건. 하루 평균 44건-노동쟁의건수가 해방이후 이때까지보다 많음.)...노동운동 폭발(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중화학공업 중심).
"노동자계급"의 등장.
이후? cf.대기업생산직 정규직 남성노동자...재벌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전략?
- 실질임금 상승.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 58년 개띠 세대의 보수화 경향의 물질적 근거?
- 부동산가격 폭등. 전세난.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 등이 수요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ex.강남구 땅값 90년 한 해에만 36.6% 상승. 주가지수 1,000 돌파(1989년)
- 주택 이백 만채 건설...신도시 개발 등.
- 자본-노동-국가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이 정립되어야 하는 시기.
87년 체제? - 신자유주의의 시작?:
자본의 전략: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자본집약적. 중소기업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대기업(500인 이상=100)/중소기업임금(10-29인) 격차는 꾸준히 확대. 80년대 후반 87-8수준에서 88년에는 7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90년대 IMF 위기 이전에 이미 70 수준으로 하락. 2000년대 오면 50대.

- 한국적 포드주의(대량생산-대량소비)의 성립...마이카시대.(1985년 자동차 100만대 보급).
- 중산층 의식(설문조사의 압도적 다수가 중산층이라고 답함)...cf. 피케티가 말하는 "세습중산층"의 형성?(엄밀하게 세습은 아닐 수도!)
- 과소비 담론도 등장. ex. 198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74만 7천원. 소비증가율>소득증가율. 경제위기담론...경제를 살리자. 재계는 고임금을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
-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1989년
- 마광수, <즐거운 사라> 사건(1992년). 이중적 성의식. 리버럴리즘의 가치는 멀다!

6. 1990년대 중반(-IMF위기 전)

- 58년 개띠...삼십대 중후반의 나이. IMF위기 때 구조조정, 한편으로는 관리자급.
- 도금시대(gilded age)?
cf. 해외여행 증가(만달려 수준..중국 요우커). 자동차 내수시장 포화. 과소비논란.
- 취업사정은 괜찮았나?...
실업률 2% 수준(cf. 30대...1.8에서 1.4%수준. 20대..4-5%수준 2013년 각각 2.5 및 7%대 정도.) 물론 취업의 질 악화. 물가수준 6.3%(94년) 그 밖에는 4%대.
금융권 확장. 재벌계 대기업. 그러나 양극화 조짐은 이미 있음.
e.g. 자영업자 1인당소득 vs. 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은 1993년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함! 애매하긴 하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4-6년에 상승추세.
- 시대상...영화 <건축학개론> <초록물고기>...계층상승가능성?
- 경제지표: 1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 돌파(1994).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그러나 무역수지적자.
cf. 한국 수출구조...소수 품목 대기업 중심(삼성그룹 하나만 10% 이상). 마치 올림픽 엘리트 체육의 양상을 보는 듯함.
OECD가입(1996). 금융, 자본시장자유화 진전.
- 1994.11 APEC(호주)에서 돌아오던 대통령, '세계화'를 주장.
- 멕시코 폐쇄화 위기(1994)...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에 대한 우려는 이미 있었음.
- 경기변동 사이클: 1995년 상반기 정점(peak). 순환상으로도 1997년 하반기는 하강국면.
- 금융실명제 실시(1993), 부동산실명제(1995) 실시.
- 삼성 이건희 회장,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부는 사류"발언.. "87년 체제"(경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 그러나, 노동법 날치기 통과(정리해고 법제화 등 내용. 1996.12.26)...대규모 파업. 철회. 외환위기 이후로 미루어짐. 민주노총(1995)<---전노협
cf. 노무현 대통령 발언("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 3당합당(1990), 김영삼 정부 성립(1992)...보수대연합 정권의 성립. 신자유주의를 위한 물질적 기초.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1996년 한총련(연대) 사태. 1994 김일성 사망. 박홍 총장(주사파 발언)..1994 좌파 운동권 출신 민자당 입당. 정치적으로 보수지형의 형성?...엘리트(?)들의 체제편입 신호탄 or 완성? (재야운동권의 주변화?)...58년 개띠 생활인으로서의 보수화? (노무현 정권 성립은 어떻게 설명?...)

7. IMF위기.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1997-)

- 58년 개띠가 사십 대에 접어들 무렵...
- IMF위기(IMF는 원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 위기이름에 IMF가 붙는 역설)
- 아시아적 자본주의 모델의 붕괴?(장하준 등)...발전국가모델의 변화.
혹은 아시아적 특성...연고(정실)자본주의, 고부채...과잉중복투자모델의 몰락?...장단기 자금 미스매칭.
IMF위기의 원인?...과잉중복투자(자동차..삼성진입, 반도체, 철강 등). 외환위기...외채누적인가?
cf. 성수대교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개발주의의 폐해?
- 원.달러 환율이 6개월 사이에 두 배로 상승(2000원대 육박)
- 성장률...4.7%(97), -6.9%(98), 9.5%(99), 8.5%(2000)
1980년 이후 두 번째 마이너스성장,
실업률 급상승(97년 12월 3.1%...6.6%(98.3)...7.1%(98.6)...8.0%(98.12)...8.6%(99.1)
30-39세의 경우, 같은 기간 1%대에서 7%로 상승. 40-49세도 비슷함)
- 금리 급상승(98년 초반 거의 30퍼센트 수준)...4대 재벌 제외, 어음할인도 안 해주는 수준.
- 10만명당 자살수: 29.5명(97)...48.5명(98) cf.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47.1명(2008)에서 62.4명(2009)으로)
- 신자유주의의 본격화..구조조정(cf. 눈물의 비디오...제일은행. 주인공...은행 차장급. IMF당시 42세)
- 1987년 이후 자본-노동-국가의 헤게모니 싸움? 신자유주의적으로 완전 재편(ex.노동법). 기업구조조정. 국내자본시장의 세계시장으로의 깊숙한 편입. 시장개방, 규제완화,민영화 등

양극화추세...대기업(5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10-29인) 임금지수가 60대로 하락. 고용규모 자체도 대기업은 87년 이후의 꾸준한 감소추세를 이어나감, 98년 이후는 정체, 반면 중소기업은 위기 이후 오히려 증가. 재벌에게는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굳히는 계기가 됨. 악화되던 수출주도형 성장의 성격이 IMF위기 이후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연구도 있음(이른바 낙수 효과의 소멸과 관련될 가능성).

- "유형주점형 경제모델"의 형성...관계에서 거래로! "이익은 위로, 책임은 아래로!",
- 노동소득분배율 급격한 하락추세(자영업자 조정된 추계방식에 따를 때...공식 데이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음! 자본소득분배율이 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거의 40퍼센트 포인트 이상 상승)
- 민주화는 자유화 or 시장경제도입?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독재=비민주=자본주의로 이해하던 운동권 출신들 중, 비독재, 자본주의가 가능한 걸 뒤늦게 깨닫고 정반대로 가는 경향도 나타남)
- IMF등이(97-98년생...그보다 약간 앞까지)...의 부모세대?(58년 개띠 부터 386세대)...경제적 몰락과 그 영향? 인류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함. (천안함, 세월호 희생자 부모세대)
- 금모으기 운동(약227톤)...성과는? 이런 방식의 위기극복이 가능?
- 96년 <아버지>, 2000년 <가시고기> 소설. 아버지의 비애...혹시 아버지=국가...식의 담론 치환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은 없었을까? (ex.국부유출론). 역으로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믿을 것은 가족 뿐이다"...공동체적 돌봄도 복지국가적 사회안정망도 없는 자리에서 가능한 유일한 것.
- PC통신 보급.

8. 2000년대 초반-중반(58년 개띠의 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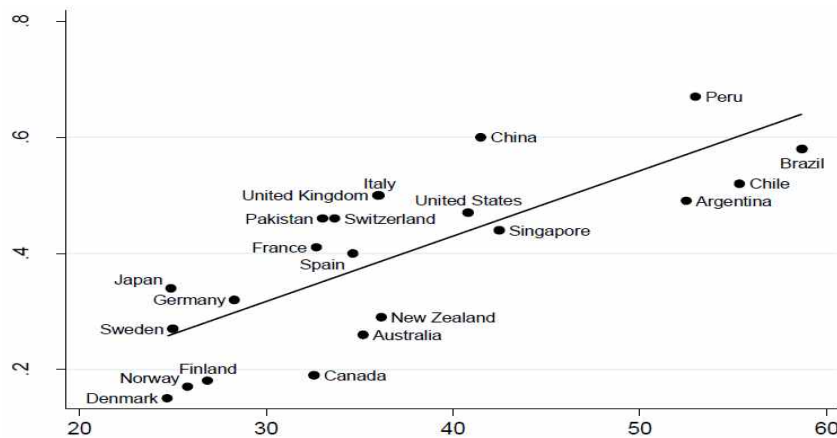
- 인터넷, 휴대폰 등 급속한 확산...디지털 문화. (노사모?)
- 한일 월드컵...광장의 열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벤처붐...대 재벌정책으로서의 의미? 부가가치생산액에서 재벌계 비중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이유로 기대감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 노무현 대통령 당선. 세대별 지지율(출구조사 자료)..이회창 vs. 노무현=30대 33.9%:59.3%, 40대: 48.0% vs. 47.8%, 50대 이상은 58.3 vs. 39.8...58년 개띠 세대는 정확하게 균형추역할? 이들이 10년 뒤에는 보수화?...원인은 무엇일까?(성장시대에 대한 향수?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 보수적 동원의 손쉬운 대상?...Fascism의 경제적 배경과 유사한 측면도 있음.)
노무현 당선의 의미?: 386 민주화 세대...개천에서 용 난다?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이명박은?-비슷한 의미가 있음) cf.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당선.
- 대연정제안...한미FTA?
- 87년 체제의 한계?: 정치, 경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노무현 발언)
- 탄핵. 행정수도 이전판결(2004)...정치적 사안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되는 것.
cf. 미국의 반독점법...독점(경제적 사안)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cf. 경제살리기 명목의 재벌 총수 석방.
- "88만원세대" (출간 2007)...비정규직으로 삶을 사는 세대의 등장. 삶의 방식의 변화.
cf. 대기업(500인 이상=100)/중소기업임금(10-29인) 지수의 변화: 68.1('98), 68.2('99)

69.4('00) 62.7('01), 59.4('02), 58.5('03)....dramatic fall!

- 최종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1990년. 29.4% -> 2000년. 45.3%...내수중심으로 가는 듯하던 80년대말-90년대초의 흐름이 다시 back. 낙수효과상실이나, 비정규직 확대, 재벌계 수출대기업 중심 발전(고용효과 작음) 등과 연관되어 있음. ---> 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과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의 격차는 외환위기 전후 오히려 약간 좁혀지다가(임금근로자 소득감소 탓), 2000년 정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벌어짐(지금도 계속).
- 2003년 카드대란
- 2005년-2010년까지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연 9.3%씩 증가, GDP는 연평균 6.3% 증가.
- IMF 위기를 거치면서 하락했던 부동산가격, 2000년대 중반 다시 상승. (386세대? 강남북 격차확대? 58년 개띠의 역할은?)

9. (2008년-) 저성장시대, 은퇴의 시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세계사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
- 2007년 747공약, 이명박 대통령 당선. 촛불시위...의미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 2008년 이후 평균 3% 대 성장(2010년은 6%대...2009년 낮은 성장률의 반등). 부동산 가격도 정체, 거래부진(중산층의 경우도 불안을 느낌...자산구성의 80%가 주거용 부동산...)
- 피케티비율...자산/소득비율. 한국은 data가 2000년대 이후만 가능하나, 대체로 6에서 7사이의 값. 피케티가 다룬 30여개국 중 일본이나 이탈리아 정도를 능가하는 최고수준.
한국의 경우 주거용부동산이 부(재산)의 80퍼센트 이상 차지. 따라서 집값/연봉으로 계산해 봐도 금방 나온다. ex.1970년대 말 대기업 초봉 10만, 은마아파트 분양가 3천만. ∴ 15-6년치 연봉. 작년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30평=6억. 대기업 초봉 3천?
1997-8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위대한 개츠비 곡선: 세대간 소득탄력성과 지니계수(소득분배불평등) 사이의 비례관계. 북유럽국가들은 0.2이하, 남미 국가들은 0.6이상(의미: 부모세대 소득 100% 증가할 때, 자녀 세대의 소득이 60% 증가)....



- 우리는 58년 개띠 곡선이라 부를 수 있을까(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 혹은 88만 원 세대 곡선?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률만 표시해도 역(逆)U자형이 될 것이다..

10. 결론

- 58년 개띠에 적용되는 지금까지의 얘기들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86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됨. 이른바 반퇴시대(평균수명 연장. 은퇴하지 못하는 베이비부머들...실제로 50대의 취업률 증가현상!)
-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지났다? → 미꾸라지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통해 뭔가를 해주는 시대는 지남. 저성장시대...
애초에 성장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 불 시대,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가계소득은 6천만원대..피케티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 4억 정도...그렇다면 고성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 저성장단계 진입을 받아들일 때, 이를테면 부동산투자나 노후대비...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하기는 해야겠으나, 사회적 차원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ex. 사회적 서비스...시니어 고용...공공부문의 확충.
- 평등주의적 열망 내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경험 vs. 국가주도 하의 집단적 성장의 기억 (plus 가족 중심의 생존경쟁) 등이 공존...공정적 요소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과거가 미래를 삼켜버린다”(피케티)...능력주의가 깨지고 세습재산이 중요해지는 현실을 지적, 그러나 약간 다른 의미로 세대간 착취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음!